

# 주말경제

Economy

## 배당주 펀드 잘 고르려면...

배당주 펀드를 통해 분산투자 효과를 높이려면 보다 스타일이 명확한 배당주 펀드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운용회사별로 배당주 펀드 선별 기준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비교하고 쉽게 선택하면 곤란하다. 배당주 펀드 고르는 방법을 소개한다.

▶투자설명서를 읽어라=가급적 배당주에 국한된 펀드를 찾는 게 좋다. 배당주 이외의 다른 투자대상도 감안하는 펀드는 분산투자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오래된 펀드가 유리하다=정해진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배당주 투자를 이끌어 온 장기펀드라야 운용사의 배당주 투자철학이 검증되기 때문이다.

▶스타일 변화를 점검하라=펀드평가 사이트 등을 통해 스타일 변화를 점검, 지속적으로 가치주 계열에 속해 있던 펀드를 선택하는 게 좋다.

▶편입종목을 살핀다=펀드 정보 사이트 등을 활용해 주요 편입종목을 파악한 다음 누가 봐도 배당주라고 보기 힘든 주식 편입과 있으면 일단 배당주로서의 가치를 의심해 봐야 한다.

# 찬바람 불때 배당주를 노려라

가을로 접어드는 이맘때면 배당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심리가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안전 자산 선호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계절적 요인까지 감안할 때 배당 투자에 대한 매력력이 발산할 시기이기 때문에 배당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연말 배당금 챙기고 시세차익 얻어 '일석이조'

## 작년 고배당주 보다 이익 모멘텀 우수한 종목

◇배당투자 여전히 매력적이다=배당주는 배당으로 현금도 챙기고 주가 상승으로 시세 차이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인해 해마다 이때쯤이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더구나 코스피지수가 2,000을 넘어선 상황에서 올해 주가 상승을 주도한 철강·조선 등 중주 관련주의 가격 부담이 크고 연말 배당을 겨냥한 연기금과 외국인의 매수세, 가치주 중심의 선별적 투자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배당투자에 관심을 둘 적이다.

주주중시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에 따르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유가증권시장 기업 비중은 2002년 61.8%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74.4%로 증가했다. 주당 평균배당금도 2002년 877원에서 2006년 1천270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현금배당 실시기업의 주가도 크게 상승, 시가배당률(배당금/배당기준일 주가)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도 사실이다. 또 시중금리가 상승기여서 배당 투자의 매력력이 전만큼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배당으로 인한 단순 수익 외에도 배당주들의 주가가 대부분 연말로 갈수록 상

■2007 배당수익률 (추정) 상위기업 (단위:%, 자료:한국투자증권)

기업	수익률
외환은행	6.8
S-Oil	6.5
KT	4.3
대덕전자	4.1
대구은행	3.8
KT&G	3.7
한라공조	3.7
SK텔레콤	3.7
피앤엘	3.5
부산도시가스	3.5
우리금융지주	3.4
LG텔레콤	3.4
하나금융지주	3.3
기업은행	3.2
대덕GDS	3.2

승한다는 점, 배당락 효과로 주가가 하락한 뒤에도 빠른 복원력을 보였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투자 차원에서 접근할 메리트가 충분하다.

우리투자증권 호남지역 담당 나운택상무는 "배당률이 높지 않다고 해서 배당투자의 매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며 "배당이라는 확실한 실현가능 이익과 이에 따른 주가상승으로 추가적인 자본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배당 유망주에 대한 투자는 약세장에서는 안전판 역할이 되며 강세장에서도 높은 수익 창출위한 선제 조건이 될 수 있다. 우량 배당주는 조정장에서는 하락 위험이 적고 상승장에서는 코스피 지수와 비슷하거나 초과하는 수익을 내는 특성이 있다.

◇일짜 배당주 고르는 원칙=배당투자 유망종목으로 전문가들은 단순히 지난해 말 배당금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고배당 종목군은 소형주가 많고 이들의 주가 변동성은 매우 클 뿐 아니라 배당금 예측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코스닥 중소형주의 경우 적자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회사 정책상 배당을 지속하는 종목들도 있다. 배당금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한 투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고배당 종목군 내에서 하반기 이익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종목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양호한 배당수익률이 예상되는 종목군 가운데 순이익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게 안전한 투자방법이라는 것이다.

투자 금액도 살펴야 할 변수다. 투자 금액이 적은 개인투자자라면 연말을 노린 단기 배당 투자보다는 이들 기업의 장기적인 주가 상승세를 보고 장기 투자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유리하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탓에

기대 배당수익률을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배당주를 장기 보유할 수 있다면 다음해 2월까지 보유하는 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다.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의 주가가 일반적으로 9~10월에 큰 폭으로 오른 뒤 시세 차이 실현과 배당락으로 인해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2월까지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실제 배당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지수의 월별 등락률을 살펴본 결과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11월 이전에 배당투자자에 나선 뒤 내년 2월 중 수익을 거두는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단기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둔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이밖에 주가수익비율(PER) 등을 고려해 주가가 얼마나 싼지 여부를 챙겨야 한다. 주가수익비율(PER)이 업종 평균보다 낮아 저평가돼 있는 종목을 찾는 것도 주요 투자 포인트다. 150% 이하의 부채비율을 양호한 재무조건을 갖췄는지 등의 여부도 투자시 살펴 봐야 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연도별 배당수익률 상위 기업 현황 (단위:%, 자료:증권선물거래소)

연도	수익률	2005	수익률	2006	수익률	
①	캠브리지	59.0	한국셀섹유	20.6	신한	9.1
②	한국셀섹유	12.8	동서산업	7.2	동원산업	8.5
③	영풍제지	12.4	S-Oil	7.1	한국셀섹유	8.3
④	부산산업	12.2	KT	7.1	대양금속	7.9
⑤	휴스틸	11.9	극동유화	6.7	WISCOM	7.3
⑥	한신공영	11.2	한국수출포장	6.4	외환은행	7.2
⑦	모나리자	11.2	휴스틸	6.3	S-Oil	7.2
⑧	모토닉	10.2	WISCOM	6.1	지투알	6.5
⑨	WISCOM	9.7	영풍제지	6.1	태경화학	6.5
⑩	튬보이	9.6	태경화학	6.0	극동유화	6.5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대상

## 투자 시기·종목 자신 없다면 배당주펀드가 안전

### 운용 능력 따라 수익률 큰 차이

### 배당주 보다 길게 보고 투자

주식 직접투자에 부담을 느낀다면 배당주 펀드를 눈여겨 볼만하다. 배당주 펀드는 배당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에 주로 투자해 배당수익과 함께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배당수익률은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것으로 주가가 오르게 되면 배당수익률은 떨어지게 된다. 올해 코스피지수는 연초 1,360선에서 현재 2,000선을 넘었기 때문에 평균 배당수익률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프런티어배당주펀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각 기업의 평균 시가배당률은 2002년 5% 수준에서 2005년 2.5% 가량으로 뚝 떨어졌고 올해는 2~2.5% 사이일 것으로 예상됐다.

◇배당주 펀드도 운용능력 잘 따져야=배당주 펀드는 기본적으로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한다는 전제이지만 운용능력에 따라 수익률은 큰 차이를 보인다.

펀드평가사 제로원에 따르면 성장형(주식비중 70% 이상) 배당주 펀드 중 수익률(10월5일 기준)이 가장 좋은 펀드는 '삼성배당주장기주식'로 1년 수익률이 74.31%였다. 반면 같은 성장형 배당주펀드 중에서도 '프런티어배당안라주식Class C1'은 1년

수익률이 38.1%여서 2배 가량 차이가 났다.

같은 배당주펀드라고 하더라도 상품의 구조 및 운용능력에 따라 수익률이 펀드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에 가입하기 전에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편입 비중 등의 구조와 운용사의 과거 실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주가 상승기에는 중소형주 편입 비중이 높은 펀드의 성적이 양호한 반면 조정기에는 대형주 편입 비중이 높을수록 성적이 좋아진다. 또 같은 구조라 하더라도 운용사에 따라 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배당주 투자는 짧게, 배당주 펀드는 길게=고배당주에 대한 직접 투자는 배당 기준일까지 보유하는 방법과 기준일 전이라도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배당주펀드 투자는 일반 펀드처럼 장기로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삼성증권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배당주펀드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1.4% 수준에 불과했다.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초과 수익을 올린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그 보다는 펀드 선택을 잘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연말에 1~2%의 배당수익률을 얻기 위해 배당주 펀드를 단기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니다"며 "시기적으로 9~10월에 가입하는 것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배당주펀드도 장기로 투자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고용보험 환급과정 수강생 모집**  
 "수강료 80~100% 환급"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4F)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첨단점 ☎ 971-0002 빅마트 원단점 및 광주은행 4F

**전액국비수강생모집**  
**컴퓨터**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영세자영업자	기업사무자동화 인력양성과정	3개월	11월 1일
재직자 및 일반인	컴퓨터활용실무	2개월	10월 15일
	CAD	2개월	10월 22일
	MOS(Master)	2개월	10월 15일
	정보통신실비	2개월	11월 1일
정보처리	정보처리	2개월	매월 초
	정보화 기초1,2	5주	매월 초

= '08년 국가·지방직 합격 대비는 지금부터가 좋습니다 =  
**7급 공무원** 합격특강  
**강좌적중**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검정직, 보충직, 소방직, 전산직, 토목직, 검출직, 물리화  
 ◎수많은 선배 공무원들의 無等 선택은 역시 지혜로웠습니다◎  
**개강: 11월 1일 주·야 (휴일)반 모집** (전직종류별 시험준비) (월제·약학·수중)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위 (중앙초교 부근) ☎ 222-4560  
 www.mdgoal.co.kr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허리디스크  
 ※자세한 자료는 지리산한약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NAVER 검색창에 **지리산한약방** 을 쳐보세요  
 문의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지리산한약방

**부동산실무**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공인중개사	2개월	11월 12일
	주택관리사	2개월	11월 12일

 ※ 교육대상 : ■영세자영업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일반인 및 대학생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6개월 과정 특별반 집중중!!**  
 (주간반, 야간반, 주말반)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224-4560, 232-1088 http://www.hdsu.co.kr

**10월 1일 대개강**  
 전문대출연(예정자), 4년제대학 2학년만 미치면 누구나 원하는대학, 원하는 학과 3학년으로 편입가능!!  
 개설과목 : 영어, 수학, 상용, 화학, 유기화학, 물리, 한문, 한의학, TEPS  
**일반대, 사립대 편입반** **역대, 한의대 편입반**  
**MEET/ DEET** **TEPS 최단기 고득점반**  
**김영면임·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 227-9088